

#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의 놀이 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The Effect of Father's Playfulness on Father-Child Intimacy -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

전혜영<sup>1</sup> 이희선<sup>2</sup>

Hey Young Jeon<sup>1</sup> Hee Sun Lee<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playfulness and father-child intimacy.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500 fathers with 3~5 years olds attending kindergartens and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ather's Playfulness Scale, Father's Play Participation Scale, and Father-Child Intimacy Scale were used as data measuring tool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examining sub-variables of play participation among fathers, it turned out that mediating effects occurred in physical play, role play, and function play.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father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 intimacy between father and child as the role of father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age of co-parenting.

**key words** father playfulness, father-child intimacy, father participation in play

\*본 논문은 2018년도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졸업

#### <sup>2</sup> 교신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mail : hslee@gachon.ac.kr)

## I. 서론

이른 시기의 질 높은 놀이 경험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사회적 기술과 학습기술 등을 연습하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된다. 유아의 첫 놀이 경험은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되고, 부모와의 의미 있는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주변 환경에 대한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nsburg et al., 2007). 부모와 자녀의 놀이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독립적인 기여도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며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하여 조사하려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임우경, 2013) 아버지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 가부장적 사회의 전통적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공동양육자로서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유아의 상호작용 관계 질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요인으로는 친밀감이 대표적인데, 친밀감은 다른 사람과의 강력한 지적, 신체적,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Kieffer, 1977)으로 가족 관계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아버지-유아의 친밀감은 아버지가 유아에게 표현하는 애정과 신뢰의 행동으로 심리적 지지 등 격려해주는 행동 또는 태도를 말하며 상호관계를 통해 아동이 지각하는 주관적 정서를 평가하는 것으로(이미경, 김성희, 2011) 상호작용의 질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비록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성역할 학습, 인지발달, 성취동기 및 직업선택 정서적 안정감 등 제반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광균, 2000; 임정란, 2002; 한현아, 2000).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는 다른 역할을 하고 발달 특수적 행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Grusec & Davidov, 2010).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적 기대 행동의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더 놀리거나 거친 신체 활동으로 놀아주는 등 어느 정도의 위협 행동을 수용하며 놀아주는 상호작용을 하고, 경쟁적인 놀이 활동을 촉진한다(Cabrera, Fitzgerald, Bradley, & Roggman, 2014). 자녀와의 놀이유형도 아버지는 신체적 놀이, 까꿍놀이, 자극중심의 놀이를 어머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1997).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놀이 행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양육 활동 (예: 목욕, 식사시간 등) 뿐 아니라 구조화된 놀이 활동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아버지들의 놀이 행동은 때로는 의도된 놀이 활동으로 계획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와 유아의 관계에서 애착을 증진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 놀이성은 놀이 활동 시 나타나는 심리상태로 즐거움과 흥분 등의 정서 상태 정도를 의미하며, 부모의 창의성, 상상력, 유머, 상상력과 호기심 등을 포함한다(김영희, 1995; 오정미, 2014; Menashe & Atzaba-Poria, 2017). 국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이성 수준은 유사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민감성, 구조성 등의 놀이성을 보이며, 아동의 적응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enashe, Atzaba-Poria, 2017), 어머니보다 더 민감하게 놀아주는 아버지의 놀이성은 청소년 자녀의 애착 표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n et al., 2002). 반면에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가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가족 간에 친밀한 정서적 지지가 많다고 하였으며 아버지의 놀

이성이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과정에서 친밀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조옥미, 2005).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관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아버지-유아 친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버지 놀이참여와 놀이성에 대하여 변인별 관계로 살펴본 선행 연구(송은혜, 2008)에 의하면,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와 놀이성 간에 정적인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의 하위 요소 중 구성놀이 참여가 아버지의 놀이성의 쾌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놀이 참여는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놀이 참여는 쾌활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놀이 참여는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놀이는 쾌활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놀이는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중 신체놀이, 게임, 기능놀이와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이 유아의 사회 지식 이해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 유형과 유아의 발달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유아와의 신체놀이가 많을수록 유아의 정서인지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배행연, 2004). 아버지의 역할놀이, 기능놀이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고(최혜순, 김찬숙, 2011), 아버지의 구성놀이 참여도는 유아의 정서지능 중 타인인식, 타인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오정미, 2014). 부모의 놀이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놀이성 수준 혹은 놀이참여 수준(양적 수준)에 초점이 되어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심윤희, 2011),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은혜, 2008).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들(배행연, 2004; 송은혜, 2008)을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은 자녀와의 놀이참여의 양적 시간 뿐 만 아니라 놀이유형별 참여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놀이 참여 유형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 놀이참여가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도하고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권혜진, 2010; 이영석, 성영화, 2006; 한영숙, 2006).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친밀감을 인식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기쁨을 공유하는 경험으로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eis, 2000).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를 풍부하게 이끌고 관계를 친밀하게 유도하며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권혜진, 2010; 이영석, 성영화, 2006; 한영숙, 2006). 즉, 아버지의 외현적인 놀이참여 행동은 자녀와 심리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박신영, 이진희, 2013),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상황에서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

하게 한다는 것이다(임예슬, 한유진, 2015; Yogman, 1977, March). 이와 같이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단기적으로 자녀의 놀이에 대한 집중력과 만족감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박형신, 김정주, 2017).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인 놀이성은 아버지 놀이 참여를 예측하고, 놀이참여를 통해 아버지-유아 간의 친밀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양육행동인 가정 내의 놀이 맥락에서 아버지가 지닌 심리적 상태인 놀이성과 놀이 참여 유형 간의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부족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놀이 맥락이라는 특정 상황 영역으로 연구 초점을 구체화하여 자녀와의 친밀감을 독려하기 위한 아버지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놀이참여가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19곳, 어린이집 34곳의 유아의 아버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기관의 원장과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0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총 4주 간 진행하였다. 아버지용 질문지를 500부를 배포하여 330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66%),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한 28부를 제외한 최종 302부(유효율 60.4%)의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응답자의 빈도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설문응답자의 자녀는 남아가 161명(53.3%) 많았고, 유아의 연령은 3세 116명(39.2%)로 만 3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4세, 만 5세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156명(52%)로 가장 많았고, 둘째, 셋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171명(57.0%)로, 가장 많았고, 1명, 3명, 4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학력분포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116명(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졸업, 전문대 졸업,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직업은 사무직이 79명(2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기술직, 행정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기능직, 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을 살펴보면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인 가정이 36명(1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상인 가정이 28명(9.3%),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인 가정이 27명(8.9%),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인 가정이 26명(8.6%),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 8명(2.6%)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 = 302)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		
남아	161	53.3	고등학교졸업	5	1.7
여아	141	46.7	전문대졸업	16	5.3
자녀연령			대학교졸업	116	38.4
만5세	85	28.7	대학원졸업	58	19.2
만4세	93	31.4	직업		
만3세	116	39.2	무직	8	2.6
출생순위			생산기능직	29	9.6
첫째	156	52.0	서비스직	29	9.6
둘째	114	38.0	판매직	38	12.6
셋째 이상	30	10.1	사무직	79	26.2
자녀수			행정 관리직	58	19.2
1명	76	25.3	전문기술직	61	20.2
2명	171	57.0	수입		
3명	47	15.7	300만원이하	8	2.6
4명 이상	6	1.9	300만원 초과 ~ 400만원이하	26	8.6
			40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27	8.9
			5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36	11.9
			600만원 초과 ~ 700만원이상	28	9.3

## 2. 연구도구

### 1) 아버지의 놀이성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lynn과 Webster(1992)가 개발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 APS)’를 박현숙(2003)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Glynn과 Webster(1992)의 척도는 원래 ‘자발성’, ‘표현성’, ‘유쾌함’, ‘창의성’, ‘순수성’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박현숙(2003)이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16번, 22번, 24번 문항을 제외하고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의 4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의 4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쾌활성’은 활기 있으며 명랑하고 밝고 개방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상력’은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흥성’은 천진하고 표현적이며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발성’은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22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쌍의 형용사 중에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더 가까운 쪽에 ‘다소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형용사 쌍의 왼쪽에 위치하는 형용사 문항이 더 높은 점수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2~154점으로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2이다.

2) 아버지의 놀이참여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을 질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기 위해 Stevenson, Leavitt, Tompson 그리고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단계를 기초로 원희영(1998)이 제작한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구성놀이참여’, ‘신체놀이참여’, ‘교수놀이참여’, ‘게임놀이참여’, ‘역할놀이참여’, ‘기능놀이참여’의 6개 하위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방관’(1점), ‘바라보기’(2점), ‘소극적 참여’(3점), ‘적극적 참여’(4점)의 Likert식 4점 척도에 아버지가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해당 영역의 놀이참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1이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내적합치도 계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버지의 놀이참여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예시 및 문항과 신뢰도 (N = 302)

하위요인	하위요인별 예시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구성놀이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장난감 조립 등	3	1,2,3	.78
신체놀이	서로 껴안기, 달리기, 잡기 놀이, 씨름하기, 음악에 따라 춤추기 등	4	4,5,6,7	.65
교수놀이	그림책 보기, 글자 읽고 쓰기, 숫자 세기, 주변 사물 이름 말하기	4	8,9,10,11	.80
게임	주사위놀이와 숨바꼭질 등 같은 규칙이 있는 게임	3	12,13,14	.70
역할놀이	소꿉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상상놀이 등	4	15,16,17,18	.90
기능놀이	공놀이, 딱지치기 등 의도적으로 사물을 조작하는 놀이	3	19,20,21	.65
전체		21	1~21	.91

3) 아버지-유아 친밀감

아버지 양육을 설명하는 아버지-유아 친밀감 측정 도구는 Pianta(1991)의 교사-유아관계 척도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 STRS ; 이진숙 번안, 2001)를 아버지용으로 한영숙(2006)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친밀감은 자녀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를 의미하여 관

계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친밀감 요인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평정척도로 측정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유아간의 관계의 친밀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로 2018년 2월중에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를 둔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선정한 검사도구의 적절성 및 문항 내용의 의도가 아버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19곳, 어린이집 34곳에 재원중인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유아의 아버지 총500명을 연구대상으로 2018년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 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연구변인 간의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아버지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와 친밀감의 관계

#####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아버지 놀이성의 평균은 4.30점이고,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쾌활성 평균은 4.64점, 상상력 평균은 4.65점, 즉흥성 평균은 3.70점, 기발성 평균은 4.08점( $SD = 1.31$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쾌활성과 상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즉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놀이참여는 전체 평균은 3.18점이고,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구성놀이 참여는 평균 3.09점, 신체놀이 참여는 평균 3.40점, 교수놀이 참여는 평균 3.24점, 게임놀이 참여는 평균 3.34점, 역할놀이 참여는 평균 2.80점, 기능놀이 참여는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신체놀이 참여와 기능놀이 참여가 가장 놀이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할놀이 참여에서는 아버지 놀이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은 평균 4.07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유아와 평균적으로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 및 아버지-유아 친밀감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SD	왜도	첨도
놀이성-쾌활성	4.64	1.07	-.221	-.376
놀이성-상상력	4.65	1.13	-.164	-.134
놀이성-즉흥성	3.70	1.09	.181	-.574
놀이성-기발성	4.08	1.31	.066	-.736
놀이성 전체	4.30	.91	.016	-.387
놀이참여-구성놀이	3.09	.66	-.607	.326
놀이참여-신체놀이	3.40	.49	-1.020	1.258
놀이참여-교수놀이	3.24	.58	-.585	.214
놀이참여-게임	3.34	.59	-.974	1.088
놀이참여-역할놀이	2.80	.77	-.111	-.617
놀이참여-기능놀이	3.21	.54	-.514	.059
놀이참여 전체	3.18	.44	-.379	-.141
아버지-유아 친밀감	4.07	.49	-.186	.123

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와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

표 4.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변인, 놀이참여 하위변인들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상관관계 (N = 3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67**	1											
3	.51**	.32**	1										
4	.62**	.65**	.39**	1									
5	.93**	.76**	.72**	.75**	1								
6	.16*	.17**	-.05	.09	.12	1							
7	.20**	.15*	-.01	.07	.14*	.31**	1						
8	.12	.14*	-.05	.06	.07	.37**	.27**	1					
9	.13*	.12*	-.03	.05	.09	.42**	.50**	.42**	1				
10	.13*	.16**	.02	.11	.16*	.50**	.40**	.48**	.59**	1			
11	.22**	.21**	-.06	.13*	.18**	.44**	.44**	.42**	.57**	.57**	1		
12	.23**	.24**	-.04	.16*	.19**	.67**	.65**	.67**	.76**	.83**	.77**	1	
13	.24**	.22**	.07	.13*	.25**	.26**	.30**	.30**	.29**	.33**	.36**	.40**	1

\*p < .05, \*\*p < .01.

1=놀이성\_쾌활성; 2=놀이성\_상상력; 3=놀이성\_즉흥성; 4=놀이성\_기발성; 5=놀이성\_전체; 6=놀이참여\_구성놀이; 7=놀이참여\_신체놀이; 8=놀이참여\_교수놀이; 9=놀이참여\_게임; 10=놀이참여\_역할놀이; 11=놀이참여\_기능놀이; 12=놀이참여\_전체; 13=아버지-유아 친밀감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와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의 놀이참여( $r = .19, p < .01$ )와 아버지-유아 친밀감( $r = .25, p < .01$ ) 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의 하위 변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놀이 참여( $r = .14, p < .05$ ), 역할놀이 참여( $r = .16, p < .05$ ), 기능놀이 참여( $r = .18,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성놀이 참여, 교수놀이 참여, 게임놀이 참여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버지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자녀와 신체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쾌활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 $r = .23, p < .01$ ), 아버지-유아 친밀감( $r = .24,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놀이참여 하위변인들인 구성놀이 참여( $r = .16, p < .05$ ), 신체놀이 참여( $r = .20, p < .01$ ), 게임놀이 참여( $r = .13, p < .05$ ), 역할놀이 참여( $r = .13, p < .05$ ), 기능놀이 참여( $r = .22,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변인인 상상력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 $r = .24, p < .01$ ), 아버지-유아 친밀감( $r = .2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하위변인들인 구성놀이 참여( $r = .17, p < .01$ ), 신체놀이 참여( $r = .15, p < .01$ ), 교수놀이 참여( $r = .14, p < .05$ ), 게임놀이 참여( $r = .12, p < .05$ ), 역할놀이 참여( $r = .16, p < .01$ ), 기능놀이 참여( $r = .21,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변인인 즉흥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 아버지-유아 친밀감,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하위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변인인 기발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 $r = .16, p < .05$ ), 아버지-유아 친밀감( $r = .13, p < .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놀이참여 하위변인들인 기능놀이 참여( $r = .13,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구성놀이 참여, 신체놀이 참여, 교수놀이 참여, 게임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하위변인들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성놀이 참여( $r = .26, p < .01$ ), 신체놀이 참여( $r = .30, p < .01$ ), 교수놀이 참여( $r = .30, p < .01$ ), 게임놀이 참여( $r = .29, p < .01$ ), 역할놀이 참여( $r = .33, p < .01$ ), 기능놀이 참여( $r = .36, p < .01$ )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와의 친밀감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Sobel, 1982). 매개검증하기 앞서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아버지의 놀이성을 독립변인,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매개변인, 아버지 자녀 친밀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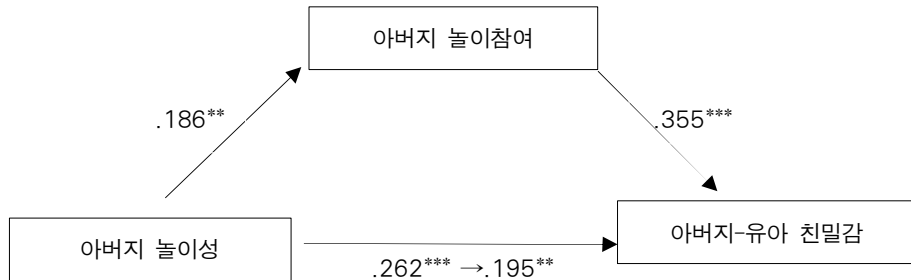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62, p <$

표 5.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놀이 참여 전체의 매개회귀 모형 결과 (N = 302)

모형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adj R <sup>2</sup>	F	Z
			B	S.E	β					
1단계	놀이성	친밀감	.139	.033	.262	4.189***	.068	.064	17.545***	
2단계	놀이성	놀이참여	.090	.031	.186	2.932**	.035	.031	8.595**	
3단계	놀이성	친밀감	.104	.032	.195	3.291**	.190	.183	27.895***	2.16 (p < .001)
		놀이참여	.388	.065	.355	5.975***				

\*\*p < .01, \*\*\*p < .001.

.001)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놀이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86, p < .01$ )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놀이참여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195$ 로 앞서 직접적인 효과  $\beta = .262$ 에 비해 낮아지고, 놀이참여는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355, p < .001$ ) 놀이참여의 매개 효과는 19%( $p < .001$ )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서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인 아버지의 놀이 참여는  $Z = 2.61(p < .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1, \*\*\*p < .001.

그림 1.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전체의 매개모형

표 6.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하위변인별 매개회귀모형 결과 (N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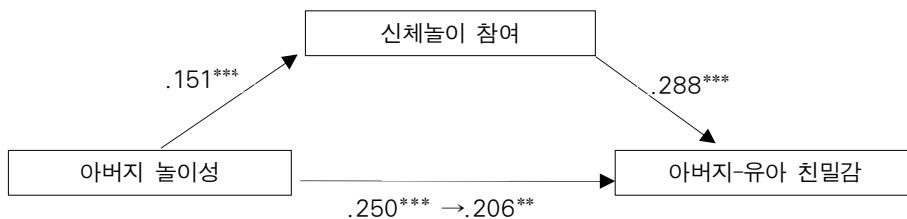
모형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adj R <sup>2</sup>	F	Z
			B	S.E	β					
1단계	놀이성	친밀감	.132	.033	.250	4.089***	.062	.059	16.732***	
			.134	.033	.250	4.089***	.062	.059	16.672***	
			.140	.033	.264	4.304***	.070	.066	18.525***	
			.133	.032	.250	4.098***	.063	.059	16.796***	
			.133	.033	.249	4.077***	.062	.058	16.626***	
			.130	.032	.245	4.010	.060	.056	16.080***	

표 6. 표계속

모형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sup>2</sup>	adj R <sup>2</sup>	F	Z
			B	SE	$\beta$	t					
2단계	놀이성	신체놀이	.084	.055	.151	2.423**	.023	.019	5.871**		
		역할놀이	.145	.053	.169	2.714**	.028	.025	7.364**		
		기능놀이	.105	.037	.177	2.844**	.031	.028	8.091**		
		구성놀이	.095	.045	.131	2.101*	.017	.013	4.412*		
		교수놀이	.059	.041	.091	1.456	.008	.004	2.120		
		게임	.066	.049	.102	1.635	.010	.007	2.672		
3단계	놀이성	친밀감	.109	.031	.206	3.496**	.143	.137	21.024***	2.16	(p < .05)
		신체놀이	.174	.032	.201	3.387**	.145	.138	21.242***	2.39	(p < .05)
		놀이성	.183	.037	.292	4.926***			26.433***	2.54	(p < .01)
		역할놀이	.109	.031	.205	3.498**	.176	.179	26.433***		
		기능놀이	.299	.053	.332	5.659***			16.665***		
		놀이성	.116	.032	.219	3.660***	.118	.111	20.258***		
		구성놀이	.173	.044	.236	3.945***			20.348***		
		놀이성	.119	.031	.224	3.807***	.139	.133	20.348***		
		교수놀이	.230	.048	.279	4.740***					
		놀이성	.115	.031	.216	3.673***	.140	.133	20.348***		
게임	.234	.049	.283	4.817***							

\*p < .05, \*\*p < .01, \*\*\*p < .001.

1) 아버지의 놀이성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신체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50, p < .001$ )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신체놀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51, p < .01$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신체놀이 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신체놀이 참여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206$ 로 앞서 직접적인 효과  $\beta = .250$ 에 비해 낮아지고, 신체놀이 참여는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88, p < .001$ ) 신체놀이 참여의 매개 효과는 14.3%( $p < .001$ )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서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인 신체놀이 참여는  $Z = 2.16(p < .05)$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부분매개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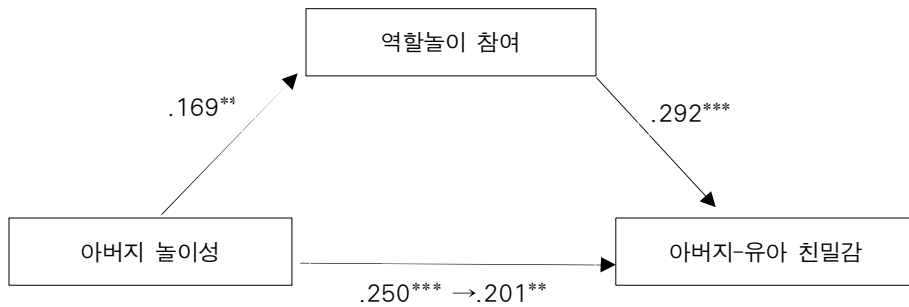


\*\*p < .01, \*\*\*p < .001.

그림 2.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신체놀이 참여의 매개모형

2) 아버지의 놀이성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역할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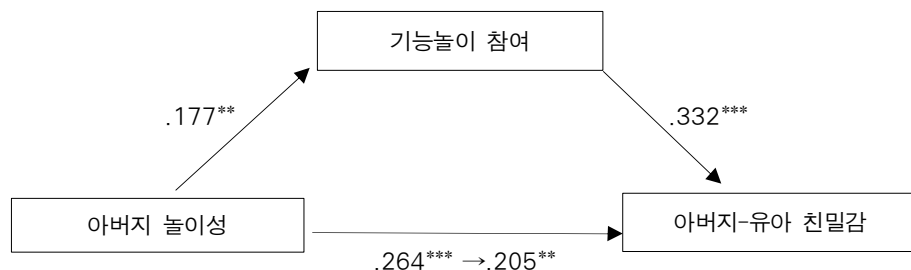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50, p < .001$ )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역할놀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beta = .169, p < .01$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역할놀이 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역할놀이 참여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201$ 로 앞서 직접적인 효과  $\beta = .250$ 에 비해 낮아지고, 역할놀이 참여는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92, p < .001$ ) 역할놀이 참여의 매개 효과는 14.5%( $p < .001$ )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서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 자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인 역할놀이 참여는  $Z = 2.39(p < .05)$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부분매개가 확인되었다.



\*\* $p < .01$ , \*\*\* $p < .001$ .

그림 3.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역할놀이 참여의 매개모형

3)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기능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64, p < .001$ )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기능놀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77, p < .01$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기능놀이 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기능놀이 참여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205$ 로 앞서 직접적인 효과  $\beta = .264$ 에 비해 낮아지고, 기능놀이 참여는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332, p < .001$ ) 기능놀이 참여의 매개 효과는 17.6%( $p < .001$ )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서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인 기능놀이 참여는  $Z = 2.54(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부분매개가 확인되었다.



\*\* $p < .01$ , \*\*\* $p < .001$ .

그림 4.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간의 관계에서 기능놀이 참여의 매개모형

4)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구성놀이 참여 매개효과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50, p < .001$ )로 유의하였으며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구성놀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31, p < .05$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구성놀이 참여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구성놀이 참여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beta = .219$ 로 앞서 직접적인 효과  $\beta = .250$ 에 비해 낮아지고, 구성놀이 참여는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36, p < .001$ ). 구성놀이 참여의 매개 효과는 11.8%( $p < .001$ )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서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인 구성놀이 참여의  $Z = 1.86(p = ns.)$ 으로 1.96보다 낮아 매개효과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으나 매개효과는 없었다.

5)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교수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49, p < .001$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의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교수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eta = .091, p = ns.$ ), 놀이성이 교수놀이 참여 사이에서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놀이성은 교수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게임놀이 참여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1단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45, p < .001$ )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의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게임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eta = .102, p = ns.$ ), 놀이성이 게임놀이 참여 사이에서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놀이성은 게임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3~5세 유아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와 아버지-유아 친밀감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 및 아버지-유아의 친밀감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성은 친밀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놀이성의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 등의 놀이적 특성에서 친밀감과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의 하위변인 중 친밀감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김자영, 2007). 또한 놀이성을 하위요인별로 친밀감과 함께 상관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의 쾌활성과 상상력이 친밀감과 상관이 있다고 했다(김중석, 2011).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감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어머니의 놀이성보다 상관이 높다고 했다(조옥미, 2005).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의 놀이성이 친밀감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친밀한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자영, 2007). 즉, 아버지의 놀이성의 특성 중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놀이성과 놀이참여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놀이성은 신체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과 신체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송은혜, 2008; 오정미, 2014). 즉, 놀이성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자녀와 신체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참여 하위변인들과 친밀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성놀이 참여, 신체놀이 참여, 교수놀이 참여, 게임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아버지-유아 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박형신, 김정주, 2017),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버지-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Roger & White, 1998; 권혜진, 2010)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 참여가 아버지-유아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이영석, 성영화, 2006; 권혜진, 2010), 놀이참여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한영숙, 2006; 한명숙, 2007; 박형신, 김정주, 2017). 즉, 아버지가 자녀의 구성놀이 참여, 신체놀이 참여, 교수놀이 참여, 게임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에 적극 참여할 때 아버지와 유아의 친밀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과의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탐색해본 결과, 아

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놀이성 수준이 높으면 자녀와의 놀이참여도가 증가하고 아버지-유아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가족원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조옥미, 2005)와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양육참여에 적극적이고 반응적이며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친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자영, 2007)의 맥락에서 볼 때 아버지의 놀이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는 놀이참여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유아와의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놀이 참여로 인하여 아버지-유아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놀이참여가 매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별로 보면 구성놀이 참여, 게임놀이 참여, 교수놀이 참여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신체놀이 참여, 역할놀이 참여, 기능놀이 참여 등이 매개효과를 보여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구성놀이 참여는 친밀감과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구성놀이가 독자적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놀이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이미숙, 2015). 다시 말해, 구성놀이 자체가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버지와 유아가 함께 집중하여 놀이할 수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놀이성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친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통계 결과상으로도 미미하지만 아버지의 놀이성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독자적으로 구성놀이 참여가 친밀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여 진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교수놀이 참여는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교사의 놀이성과 교수놀이에서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도 교수놀이와 놀이성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연구(권혜진, 2013)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성과 교수놀이 참여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분석의 기본 가정에 해당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게임놀이 참여는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게임놀이 참여는 아버지의 놀이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오정미, 2014).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 중산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 매개효과를 보인 아버지 놀이참여 하위 요인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신체놀

이 참여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놀이 참여가 놀이성에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오정미, 2014), 아버지의 적극적, 긍정적이고 유쾌한 놀이적 성격특성이 아버지와 유아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하얀, 2018). 유아기의 놀이에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더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신체놀이를 많이 하고 어머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Maccoby, 1980; Osofsky & O'Connell, 1972)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아버지의 놀이성은 신체놀이 참여를 매개로 아버지-유아 친밀감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쾌활성과 상상력, 기발성 등의 놀이적 특성을 가진 아버지와와의 활발한 신체 활동은 아버지-유아 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역할놀이 참여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놀이 참여가 놀이성의 쾌활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오정미, 2014). 또한 역할놀이는 엄마·아빠 놀이와 같은 모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놀이로서의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혜령, 2004)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쾌활한 놀이성을 지닌 아버지가 역할 놀이 참여 시 유아와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아버지와와의 친밀감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유아 친밀감 관계에서 놀이참여의 하위변인인 기능놀이 참여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놀이가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인 쾌활성, 상상력, 기발성과 정적 상관이 있고(오정미, 2014) 아버지의 민감한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중요하며 이러한 언어발달로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며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유사하다(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즉, 기능놀이가 지닌 기발성과 인지적이고 언어적 이해가 필요한 활동은 아버지가 놀이성을 갖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놀이에 참여할 때 아버지와 유아의 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유아의 친밀감에서 놀이참여가 매개 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유아의 친밀감은 아버지의 놀이성 보다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놀이참여에 적극적이고 이는 상호작용의 질을 의미하는 친밀감을 증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맞벌이 사회에 자녀 공동양육이 보편화되면서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참여와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여 주고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 및 실천적 사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아버지-자녀 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놀이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버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성장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 놀이성이 놀이참여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유아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관련 변인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버지의 개인적 요인인 놀이성과 환경적 요인인 놀이참여의 질적 수준



이 유아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의 놀이적인 성격 및 태도에도 관심을 갖고 놀이참여 및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 구체적인 놀이참여 및 놀이상호작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 수행에 기반이 되고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 아버지-유아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양육 실제에 있어서 자기보고식 검사의 제한점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는 성향에 의해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보고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안되고 있다(Winsler, Madigan, & Aquilino, 200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관찰에 의한 평정 방법이나 배우자 보고방식의 평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아버지 관련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와 놀이에 참여하는 질적인 수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놀이참여의 양적요인인 놀이참여 시간뿐만 아니라 놀이참여의 질에 있어서 자녀-아버지 간 놀이 상호작용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객관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버지-유아 놀이 시 아버지가 자녀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놀이 상호작용 내용에 따라 아버지-유아의 친밀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중일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척도에 있어 하위변인 별로 보면, 다른 선행연구에서의 척도 및 신뢰도에서 측정 수치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한영숙, 2006; 오정미, 2014). 측정도구의 제작시기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감안할 때, 점차 놀이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놀이를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놀이 유형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와의 친밀감을 증진하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에 따른 영향력을 강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버지 양육행동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doi:10.18023/kjece.2015.35.1.015
- 권혜진 (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권혜진 (2013). 신입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학습 장면에 대한 자기 이미지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165-192.
- 김영희 (1995). 아동의 놀이성 군(群)확인 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자영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이진희 (2013). 어린이집-가정 연계를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놀이신념 및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8**(1), 29-55. doi:10.16978/eccc.2013.8.1.002
- 박하얀 (2018).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신, 김정주 (2017).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과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5), 501-522. doi:10.22143/HSS 21.8.5.28.
- 배행연 (2004).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미 (2014).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령 (2004). 유아의 역할 놀이에 나타난 모방과 창조의 미학. **유아교육연구**, **24**(3), 277-303.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김성희 (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doi:10.15703/kjc.12.3.201106.997.
- 이미숙 (2015). 구성놀이가 영아의 문제해결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석, 성영화 (2006).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도 및 일치도와 유아감성지능과의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37-159.

임예슬, 한유진 (2015).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부-자녀 간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2), 1-16. doi:10.5723/KJCS.2015.36.2.1

임우경 (2013). 부모-자녀관계문제 유아와 일반 유아의 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분석.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옥미 (2005).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한명숙 (2007).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한현아 (2000). 아버지의 놀이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수준.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Cabrera, N. J., Fitzgerald, H. E., Bradley, R. H., & Roggman, L. (2014). The ecology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An expanded model.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6*(4), 336-354. doi:10.1111/jftr.12054

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1*(4), 208-213. doi:10.1080/10888690701762100

Ginsburg, K. R., Shifrin, D. L., Broughton, D. D., Dreyer, B. P., Milteer, R. M., Mulligan, D. A., et al.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doi:10.1542/peds.2006-2697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71*, 83-103. doi:10.2466/pr0.1992.71.1.83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A.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doi:10.1111/1467-9507.00202
- Grusec, J. E., & Davidov, M. (2010). Integrat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A domain-specific approach. *Child Development, 81*(3), 687-709. doi:10.1111/j.1467-8624.2010.01426.x
- Kieffer, C. (1977). New depths in intimacy. In R. Libby and R. Whitehurst (Eds.), *Marriage and alternatives: Exploring intimate relationships* (pp. 267-293). Glenview, IL: Scott, Foresman.
- Lamb, M. E. (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Wiley.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enashe-Grinberg, A. & Atzaba-Poria, N. (201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play interacti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playfulness as a moderator of the links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child negativ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6), 772-784. doi:10.1002/imhj.21678
- Osofsky, J. D., & O'Connell, E. J. (1972). Parent-child interaction: Daughters' effects upon mothers' and fathers'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7*(2), 157-168. doi:10.1037/h0033016
- Pianta, R. C. (199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USA.
- Reis, M. L. (2000). Hidden histories: Ben reitman and the "outcast" women behind sister of the road: The autobiography of box-car ber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anford, USA.
- Roger,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doi: 10.2307/353849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doi:10.2307/270723
- Stevenson, M. B., Thomson, R. H., & Roach, M. A. (1988). A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1-108. doi: 10.1037/0012-1649.24.1.101
- Winsler, A., Madigan, A. L., & Aquilino, S. A. (2005). Correspondence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 1-12. doi:10.1016/j.ecresq.2005.01.007
- Yogman, M. W. (1977, March). *The goals and structure of face-to-face interaction between infants and fath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ouisiana.

논문투고: 19.02.15  
수정원고접수: 19.04.01  
최종게재결정: 19.04.16